

그 장면 속 장소...광주, 영화 촬영지로 각광

광주시, 행·재정 적극 지원 유치
‘해어화’ ‘택시운전사’ 이어
할리우드 영화 ‘옥자’ 크랭크인



봉준호 감독 제이크 질렌할

광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의 문화자산과 자력을 영화나 드라마에 담아 소개하기 위해 광주시가 꾸준한 공을 들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개봉한 ‘해어화’에 이어 ‘택시운전사’, ‘옥자’ 등 영화 제작진과 배우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다.

한효주, 유연석, 천우희 등이 주연한 ‘해어화’는 광주 근현대사가 묻어있는 양림동 최승호 가옥·오웬기념관, 조선대 등에서 촬영했다. ‘고지전’, ‘의형제’의 장훈 감독의 신작 ‘택시운전사’는 5·18 민주화운동 소재로 한 영화로 지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 상무지구에 1980년 당시 금남로를 재현한 세트는 조성하고 금남로, 계림동 등에서도 촬영한다. 송강호, 유해진, 박혁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옥자’ 촬영으로 광주 광산구 수안 지하차도가 지난 4일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다. 5일 오후 수안병원 앞 지하차도 진입로가 촬영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권, 류준열 등 연기와 배우들이 출동한다. ‘피아니스트’, ‘김공’, ‘어벤저스 : 에이 지 오브 울트론’ 등에 출연한 독일 대표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은 목숨을 걸고 5·18 참사를 세계에 알린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모델로 한 독일 기자 피터역에 캐스팅됐다.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렌할 등이 주연을 맡은 ‘옥자’

는 광산구 수안동 지하차도와 우치동물원 등에서 일부 장면을 촬영할 예정이다. 미지라는 소녀가 가장 친한 친구인 거대 동물 ‘옥자’가 막강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납치되는 것을 막으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야기다.

시는 광주 브랜드 노출과 촬영 기간 스태프와 출연진 등 체류로 지역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로케이션 장소 발굴 등을 바탕으로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홍보를 하고 있다.

서병천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영화제작 지원과 촬영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형극으로 담배 위험성 배워요

광주시, 미취학 아동 교육

광주시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어린이 금연전도사’ 양성 기반조성을 위해 미취학 아동 대상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소년 흡연율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10.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처음 흡연한 연령도 12.5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입학 전에 적극적인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홍보사업’은 5개구 보건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며 ▲보건소 금연교육 ▲찾아가는 흡연예방 인형극 ▲흡연예방 홍보 및 흡연연장정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보건소 금연교육은 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구연동화나 금연편지 쓰기 등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이용하고, 흡연예방 인형극은 아동 공연 전문업체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11월 말까지 총 4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교육받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금연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린이 건강지킴이’가 새겨진 호루라기를 제공하고, 흡연하는 부모들에게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지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서비스 안내문과 금연 팔찌 등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 시작 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담배의 위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는 어린이 대상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집 유아 손씻기 철저히”

고은현상...수족구병 유발 엔테로바이러스 주의

최근 이상 고은현상과 함께 영·유아들이 수족구병, 바이러스성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광주지역 일부 소아과와 협력해 수족구병, 포진성구염, 바이러스성수막염 등으로 내·입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총 119건의 수집 검체 중 5월 수집 검체가 63건(52.9%)을 차지하고, 5월 수집 검체 중 38건(60.3%)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고열이나 심한 두통과 구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수막염과 손, 발, 입에 수포성 병변이 생기면서 열

이 나는 수족구병의 대표적인 원인체다. 이 외에도 포진성구염, 심내막염, 뇌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되지만,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3년간 관내 발생 상황을 보면 때 이른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4월, 5월부터 유행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해마다 유행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3세 이하의 영·유아층이 감염에 가장 취약하며,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대변이나 침, 가래, 콧물 등의 호흡기 분비물에 오염된 식품, 물 또는 장난감 등을 통해 경구적으로 전파되기 쉽다.

/채희종기자 chae@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창구 확대 요구

광주환경연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환경단체가 광주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오전 시청 협의회 의실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시 환경 담당 공무원과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피해자 접수창구를 자치구 보건소로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이 광주시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

다. 또 피해자 모임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시는 제안 등을 반영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환경생태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건강정책과 등 직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기도 했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번째로 옥시제품 불매 운동에도 참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광주에서는 30명, 전남에서는 25명의 피해가 신고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복지 전문가·공무원 워크숍.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형)은 최근 광주 상무지구 베일리컨벤션에서 광주지역의 사회복지인과 행정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복지재단 제공>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 200만원 인상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만18세 이상 보호 종료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1억4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대상자는 동구 8명, 서구 8명, 남구 1

명, 북구 10명, 광산구 9명 등 5개 자치구 36명이며, 주민등록번호상 광주시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에게만 지원된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보고 정착금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설 퇴소 아동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임야삽니다

▶전남/제주도 지역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신속/당일처리

▶개인 직거래 원함 H. 010-3605-5000

투자자모심

▶경매물건/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돈·빌려주실 분/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상 이자

▶1억원 이상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성규 H.010-3605-5000